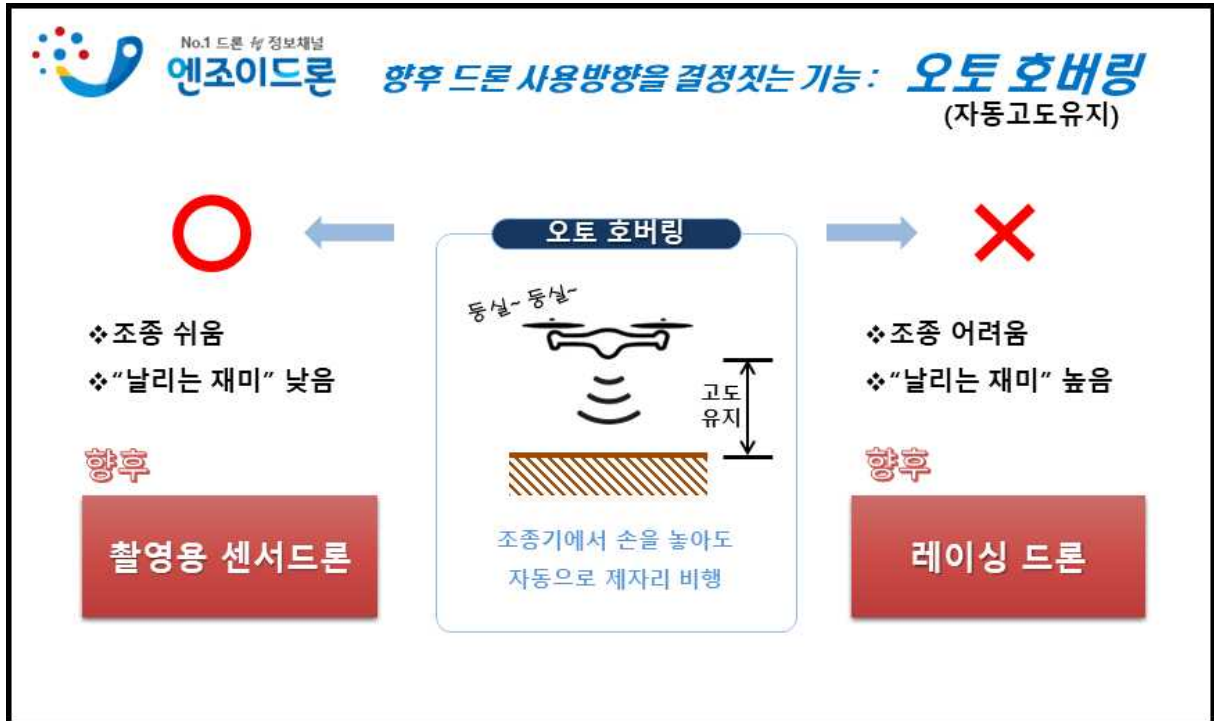


입문용 드론 추천

- 입문용 드론을 추천해드리기 전에 앞서 언급한 이 기능에 주목을 해야합니다. 바로 향후 드론사용 방향을 결정짓는 기능인 "오토 호버링" (자동고도유지) 기능입니다.



- 추천을 해드릴 때 나중에 촬영용 드론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을 위한 오토 호버링 되는 기종 5개, 나중에 레이싱 드론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을 위한 오토호버링 안되는 기종 5개씩 추천해보려고 합니다.



□ 오토호버링 X - JJRC H36



- 완구드론 중에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 H36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 Tiny whoop 인데요. 딱봐도 안전해 보이죠? 벽에 부딪혀도 프로펠러나 벽지가 상하지 않습니다.
- 그리고 배터리가 분리형이라 배터리를 교체해가며 오랫동안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.
 - 미니드론은 보통 50분 충전, 5분 비행입니다. 배터리가 일체형이라면 5분 가지고 놀고 50분을 기다려야 하죠.
- 단, 프롭가드가 좀 잘 부서집니다. 너무 험하게 다루다간 하루만에 가드부분이 부러질 수 있죠. 하지만 저렴한 가격덕분에 부서져도 별로 아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애초에 처음부터 2개씩 구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

- 장점
 - 가격저렴 (15,000원대)
 - 덕트형 프롭가드 (안전)
 - 배터리 분리형 (추가 구매 가능)
- 단점
 - 덕트형이긴 하지만 가드가 잘 부서짐

□ 오토호버링 X – DWI D1 (한빛드론 "팡팡드론")



- 국내에는 한빛드론에서 "팡팡드론"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하면서 유명해진 DWI D1 드론입니다. 사실 완구시장에서는 이런경우가 많습니다. 중국이 드론 생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보니 같은 공장에서 나온 제품을 유통사에서 브랜드만 바꾸어 출시하는 경우가 많죠.



- D1은 덕트형 프롭가드를 가진 Tiny whoop 형태가 아닙니다. 원형 가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고무같은 재질입니다. 덕트형보다도 오히려 안전하더라고요.
 - 천장, 바닥, 벽을 마구마구 부딪히고 다녀도 끄덕 없습니다.
- 단, 결정적인 단점이 있죠. 배터리가 일체형이라는것... (넵. 5분 날리고 50분 기다려 ㅠㅠ)
- 하지만 이것도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개 구입하면 돌려가며 충전이 가능하긴 합니다 ㅎㅎ
- 장점
 - 가격저렴 (15,000원대)
 - 원형 프롭가드 (덕트형보다 더 안전)
- 단점
 - 배터리 일체형

□ 오토호버링 X - 헬셀 범블비 Whoop



- 헬셀의 범블비 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범블비 whoop입니다. 이름처럼 Tiny Whoop 형태의 드론이구요. H36과 거의 유사합니다.
- 다만 H36보다 약간 더 비싸고 (그래봐야 18,000원) 모터가 커넥터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모터가 커넥터 방식이면 프레임 (드론 몸통을 이루는 틀) 을 교체할때 납땜을 안해도 되거든요. 커넥터를 뺐다 꺾다 할 수 있으니까요.
- 그래서 가드가 부러져도 프레임만 새로 사서 바꿔주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. 나머지는 H36과 거의 같겠네요.
- 장점
 - 덕트형 프롭가드 (안전)
 - 배터리 분리형 (추가 구매 가능)
 - 커넥터형 모터
- 단점
 - 덕트형이긴 하지만 가드가 잘 부서짐 (단, 부셔져도 교체 용이)
 - H36보다 약간 더 비쌌 (18,000원대)

□ 오토호버링 X - 안전망드론 (TKKJ M시리즈)

- 웹상에 안전망드론이라고 검색하면 이름이 별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M시리즈라는 드론들이 검색이 됩니다.
- M66, M69, M70, M73, M75, M77 이렇게 여섯 종류가 나오는데요.
- 딱봐도 왜 추천을 해드리는 것인지 아시겠죠? 바로 안전성 때문입니다.
- 가드 모양이 무슨 철창처럼 생겼죠. 그래서 비행중에 어디 부딪혀도 프롭이 빠질일도 없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.
- 또 그렇게 마음놓고 부딪혀도 되니 초보시절에도 과감하게 조종을 해볼 수 있어서 조종실력이 쑥쑥 크(는 느낌을 받)게 되죠.
- 오토호버링이 안되는 기종이기 때문에 향후 레이싱드론쪽으로 관심있는 드린이에게 적합하고, 그런만큼 초보때는 조종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

No.1 드론 상 정보채널
엔조이드론

TKKJM 시리즈 (일명 안전망드론)

딱봐도 뭐 때문에 추천하는지 알겠네...

자동 선회비행모드

M66
THE MINI DRONE
4 CH REMOTE CONTROL QUADCOPTER

드론사이즈: 9×10×10Cm
포장박스: 14.5×18.5×18.5Cm

지상모드 / 착지모드

M69
THE MINI DRONE
4 CH REMOTE CONTROL QUADCOPTER

드론사이즈: 13×9.5×9.5Cm
포장박스: 14.5×18.5×18.5Cm

지상모드 / 착지모드

M70
THE MINI DRONE
4 CH REMOTE CONTROL QUADCOPTER

드론사이즈: 11×10×10Cm
포장박스: 14.5×18.5×18.5Cm

자동착륙모드

M73
THE MINI DRONE
4 CH REMOTE CONTROL QUADCOPTER

드론사이즈: 12×9×9Cm
포장박스: 14.5×18.5×18.5Cm

자동착륙모드

M75
THE MINI DRONE
4 CH REMOTE CONTROL QUADCOPTER

드론사이즈: 13×4Cm
포장박스: 14.5×18.5×18.5Cm

자동착지모드

M77
THE MINI DRONE
4 CH REMOTE CONTROL QUADCOPTER

드론사이즈: 9×9×3.5Cm
포장박스: 14.5×18.5×18.5Cm

○ 모델별로 좀 살펴보면, M66, M69, M70은 바퀴형 프롭가드입니다. 드론을 완전히 띄우지 않고 바닥에서 굴러가며 가지고 놀 수 있는 기종이죠. 예전에 방송에 나왔던 스카이팬텀 미니 롤링 쿼드콥터 (일명 김건모드론)과 똑같이 생겼습니다. 그런데 저 가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유연합니다. 드론을 좀 띄웠다가 추락시키면 바닥에서 퐁퐁 튕 정도예요. 그렇다보니 가드가 안전하게 생겼음에도 프롭이 좀 잘 빠집니다. 이점은 유의하시고요.

- M73은 오투기 드론입니다. 가드 위쪽부분이 볼록하게 생겨서 거꾸로 추락해도 똑바로 서는 형태이구요. M75, M77은 납작한 형태의 가드입니다. 특히 M77은 가드가 유연하지 않아서 가장 안전형 형태네요. 개인적으로 추천은 M77 추천합니다.

□ 오토호버링 X - Eachine E011



No.1 드론 웹 정보채널
엔조이드론

Eachine E011 [방구석 끝판왕]

미니드론이라도 모터가 생명이야~







0716 Motor
POWERFUL

두께 7mm

➔



레이싱용 FPV카메라를 따로 설치해서 방구석 레이싱용으로 사용할 정도로...

- 방구석 레이싱드론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E011을 지난번에 추천을 안해 드렸었네요. (국내에서 안팔아서 추천을 안해드렸었지요)
- H36과 같은 Tiny whoop 형태이고 크기가 약간 더 큰 기종입니다.



- 드론 몸체 캐노피에 장난감 레고가 올라간다는 점이 특이한 드론이죠.
- 방구석 레이싱 드론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모터가 0716짜리여서 그렇습니다.
- 0716 이란 원기둥 모양의 브러시모터에서 두께 직경이 7mm이고 높이가 16mm라는 의미인데요. 보통 H36이나 기타 tiny whoop형 완구드론에는 6mm짜리 모터가 주로 쓰입니다. FPV레이싱용 카메라(5.8GHz아날로그)가 장착된 방구석 고글비행용 레이싱드론도 6mm모터인게 많죠.
- 그런데 E011은 7mm모터입니다. 같은 브러시리스모터라고 해도 파워가 달라요. 레고 인형을 태우고 날아야 하니 힘이 좋아야겠죠. 미니드론은 무게 몇g차이도 비행시 느낌이 다르거든요. 그 느낌이라는건... 뭐 조종해봐야 알 수 있는거라서 설명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방구석 드론 치고는 좀 파워풀합니다. 그래서 E011에 다른 제품의 카메라를 떼어다 붙이기도 하죠.
- 아무튼 E011도 Tiny Whoop 형태이니만큼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기종입니다. 오토호버링이 안되니 향후 레이싱 드론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구입하면 좋은 기종이구요.

□ 오토호버링 O – SYMA X21, X22, X23

- 완구드론의 명가 시마의 제품입니다. 한창 드론이 처음 뜨기 시작할때 syma x5c 라는 기종이 "국민드론"으로 통했었죠. 요즘은 완구회사들이 워낙 좋은 신제품들을 많이 내놓아서 춘추전국시대가 되었지만 역시 아직 노병은 죽지 않았습니다.
- x21, x22, x23 시리즈가 미니드론 시리즈인데요. 거의 디자인만 조금씩 다르고 기능은 비슷합니다. 그냥 오토 호버링 되는 미니드론 중에 가장 무난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syma 제품이니 부품만 따로 파는 쇼핑몰두 많아서 고장났을 경우 부품수급도 용이 하구요.
- x20도 있는데 배터리 일체형이라서 뺏습니다. 위에 팡팡드론은 배터리 일체형이라도 고무형 프롭가드라는 워낙 큰 장점이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 것이었구요.



- syma x21~23 시리즈는 Tiny Whoop 계열은 아닙니다. 프롭가드가 있긴 하지만 덕트형만큼 안전하진 않겠죠. 그래서 가드 안달고 날리는 분들이 많은지 프롭이 잘 빠진다는 평가도 있더군요.
- 그리고 뒤에 W가 붙은 기종 x21w, x22w, x23w 가 있습니다. 시마제품 모델명 뒤에 W가 붙어 있으면 카메라가 달려 있고 Wi-Fi를 이용한 FPV 실시간 영상전송이 가능한 기종이라는 뜻입니다. 스마트폰으로 드론이 찍는 영상을 보면서 조종할 수 있죠.
 - 그런데 여담입니다만 미니드론에는 FPV 기능이 있으나마나입니다. 일단 카메라 화질/화각도 안좋고 Wi-Fi 전송이라 화면이 상당히 끊기거든요. 그냥 카메라 연결방법 연습 + "드론촬영이 이런거구나"하는 맛보기용으로 생각하고 구입하셔야 합니다.
- 그리고 다른 미니드론들에 비해 비행시간이 약간 더 길거예요. 그래봐야



1~2분 차이이긴 하겠지만 총 비행시간이 5분 정도니 1~2분 차이를 크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겠죠 ㅎㅎ

○ 가장 큰 단점은 가격입니다. 국내 쇼핑몰에서 구입하면 4~5만원 정도 하더라구요. (카메라 있는 버전은 5~6만원씩 하고요) 그래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추천드려봅니다 ㅎㅎ

○ 장점

- 고장 시 부품수급 용이
- 배터리 분리형 (추가 구매 가능)
- FPV 카메라 버전 존재
- 약간 더 긴 비행시간

○ 단점

- 덕트형 프롭가드 아님
- 가격 비쌌 (약 4~5만원)

□ 오토호버링 ○ - 에어고 미니



- 생긴것만 봐서는 H36이나 범블비 Whoop랑 다를바 없게 생겼습니다. 어차피 Tiny Whoop 형태의 미니드론이니깐요. 하지만 에어고 미니는 오토 호버링이 되는 기종입니다.
- 뿐만 아니라 범블비 Whoop 처럼 모터가 커넥터 방식이라 프레임 교체가 쉽고요. 배터리도 분리형이라 추가배터리 구매로 장시간 가지고 놀 수도 있죠.
- 가격은 36,000원 정도 합시다만... 오토호버링 되는 기종 중에는 저렴한 편입니다.
- 단점은 딱히 없네요. 무난한 기종입니다. 특출난 장점이 없다는게 단점이랄까요? syma 와 비교한다면 카메라 버전이 없다는게 단점일 수 있겠네요. (오토 호버링 되는 기종은 향후 촬영용 드론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일텐데, 카메라 연결법 연습 같은건 못해보겠죠.)
- 장점
 - 덕트형 프롭가드 (안전)
 - 배터리 분리형 (추가 구매 가능)
 - 커넥터형 모터
 - 가격 저렴 (36,000원대)
- 단점
 - 카메라 버전 없음

□ 오토호버링 ○ - 헬셀 질럿Q

- 헬셀의 미니드론 질럿Q입니다. Tiny Whoop 형태입니다. 그런데 H36 같은 기종에 비해서 프레임이 짱짱하다고 합니다. 어지간히 부딪혀도 잘 안깨진다고 하네요.
- 그리고 질럿Q는 특이한점이 오토 호버링을 on/off 할 수가 있습니다! 이게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.
- 초보자가이드에서 제가 나중에 센서로 갈지, 레이싱으로 갈지를 결정하고 입문용드론을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마 대부분의 입문자분들이



자기가 앞으로 뭘 하게 될지조차 모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(해보고 재밌으면 빠져서 하는거죠.)



- 그런분들께 딱 맞는 드론인거죠. 특히 레이싱에 관심이 있는데, 오토 호버링 안되는 기종은 처음 조종할때 너무 어려워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난리난다는 말을 듣고 망설여 지는 분들에게도 적합할거구요. 처음에는 오토 호버링 켜고 조종연습하다가 좀 익숙해지면 오토 호버링 끄고 연습하는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.
- 또 장점이라면 조종기가 좋습니다. 보통 미니드론들은 보면 조종기가 너무 작아서 미세조종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질럿Q는 범블비 Pro에 쓰이는 조종기를 그대로 가져다 만들어놔서 크고 모양도 특이하게 생겼죠.
- 단점은 뭐, 가격이겠네요. 49,000원입니다. H36 같은건 3개 살 수 있는 가격이죠.

- 그리고 카메라버전도 없구요. (나중에 레이싱용 5.8GHz 영상의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멍은 뚫려 있습니다만... 입문자분들에게 그런건 무리 일테니, 그냥 없는걸로 하겠습니다)
- 장점
 - 오토 호버링 On/Off
 - 덕트형 프롭가드 (안전)
 - 프레임 강도 높음
 - 배터리 분리형 (추가 구매 가능)
 - 커넥터형 모터
 - 큰 조종기
- 단점
 - 가격 (49,000원)
 - 카메라 버전 없음

□ 오토호버링 O - 한빛드론 팡팡드론2 / 헬셀 질럿L



- 국내 브랜드도 좀 소개해드려야죠.
- 특히 입문용 드론 추천이 참 어려운 이유가 해외직구를 아직 해보지 못한



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.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기종 중에서 추천을 해 드리다보니 기종이 좀 한정되는 것이 있네요.

- 물론 우리 엔조이드론에 해외직구 가이드 글도 있고, 요즘 드론 말고도 뭐든지 해외직구 많이들 하시긴 하지만... 그래도 직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갖는 분들도 많습니다.
- 아무튼 국내 브랜드인 한빛드론의 팡팡드론2와 헬셀의 질럿L입니다.
- 두 기종 모두 상반기에 추천해드렸던 팡팡드론1과 동일한 디자인이죠. 그만큼 안전성이 높습니다. 이름처럼 팡팡 부딪혀도 고장 잘 안나요.
- 전에 팡팡드론1의 단점을 배터리 일체형인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팡팡드론2와 질럿L은 그 단점을 보완했습니다. 배터리 교체형이라 추가배터리 구입이 가능해요.
- 그런데 아쉬운 점은 오토호버링이 되는 기종이라는 것이죠. 팡팡드론 장점이 이리저리 부딪혀도 튼튼하다는 것이니 오토호버링 안되는 기종, 즉 나중에 레이싱드론쪽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기종이었는데... 오토호버링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. (장점을 완전히 살리지 못한다는 느낌...)
- 뭐, 아무튼 그래도 싸고, 튼튼하고, 배터리도 분리형이 되었으니 추천을 해드립니다.

□ 오토호버링 O - 헬셀 질럿R / S9W



- 마지막으로 오토호버링 되는 기종 하나만 더 소개해드립니다. 미니 스파크라 불린 S9W와 헬셀의 질럿R 입니다.
- 미니드론 주제에 접이식입니다. 디자인도 귀엽구요.
- 이녀석은 사실 위에서 강조한 안전성 같은걸로 보면 그리 추천해드릴만한 기종은 아닐수도 있겠네요. 벽 같은데 부딪히면 프롭두 잘 빠지게 생겼고요.
- 그래도 뭐 오토호버링 되는 기종의 경우, 초보라고 해도 벽에 부딪히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을것이고 일단 최근에 출시된 것이라서 추천을 드려봅니다. (단, S9 이라고 해서 오토호버링 안되는 기종도 있습니다. 그건 비추할게요.)
- 아, 두 기종이 생긴건 똑같은데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.
- 헬셀의 질럿R은 카메라가 없고, 오토호버링 기능이 있고, 배터리 교체형입니다.
- S9W는 카메라가 있고, 오토호버링 기능이 있고, 배터리 일체형입니다.
- 그리고 S9은 카메라가 없고, 오토호버링 기능이 없고, 배터리 일체형입니다.
- 그럼 여기까지, 입문용 완구드론 추천 글을 마치겠습니다.
- 완구드론들도 점점 기능들이 많이 생기고 비싸지면서 입문용으로 추천해드릴 제품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.
- 아무튼 이 글을 보시는 드린이분들은 처음쓰는 완구드론을 비싼걸로 구입하지 않길 바랍니다.